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구도

이라크전쟁 반대를 중심으로

김승국

미국·영국과 이라크의 전쟁(이하 ‘이라크전쟁’)은 전쟁 주도 세력과 전쟁 반대 세력 모두에게 성전(holy war)이었다. 전쟁을 주도한 미국·영국 연합군은 중세기 십자군 전쟁(1096~1272년)을 재현하는 성전(군국주의적 성전)을 벌였고, 전 세계의 양심적인 시민들은 역사상 최대의 평화대 peaceforces를 이루며 ‘성전(평화주의적 성전, 평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였다.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 군(이라크, 북한, 이란)을 차례차례 붕괴시키는 게 ‘성전’이라고 주장한 부시 정권. 진짜 ‘악의 축’인 부시 정권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저지하는 게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 세력. 전자가 ‘제국’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한 Pax Americana (미국의 힘에 의한 세계 평정)의 성전이라면, 후자는 제국의 힘이 관철되지 않는 ‘세계 평화를 위한 성전’이다.

가공할 무력으로 세계를 평정하기 위해 아프간 전쟁에 이어 이라크를 침공하려는 미국. 가진 것이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뿐인 전 세계의 양심을 대표한 반전평화운동 세력. 이 두 세력의 불꽃 튀기는 한판 승부는 유엔의

외교 무대와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침공 승인을 에워싼 외교전의 장외 투쟁이 뉴욕, 베를린, 런던, 동경, 서울에서 벌어졌다.

반전평화운동의 에너지선과 지향점

도대체 전쟁광 부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반전평화운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나? 수천만 명의 보통사람들로 하여금 길거리로 나와 평화의 함성을 지르게 한 힘은 어떻게 축적됐나? 수천만 명 사람들을 평화대로 엮은 조직의 힘은 어떤 경로로 형성됐나?

이런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인 반전평화 물결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를 캐물어야 할 것이다.

1. 반전평화의 물결이 일어난 이유

1) 전쟁광 부시 정권에 대한 저항 전선

미국의 전쟁 구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한 유럽과 미주(미국, 캐나다)의 운동단체들은 반전평화운동의 전선을 형성하는 쪽으로 힘을 모았다. 이런 힘의 결집은 2002년 12월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반전회의에서 채택된 카이로 선언 Cairo Declaration; Against U.S. Hegemony and War on Iraq and in Solidarity with Palestine이었다.

카이로 선언은 전 세계의 진보 진영에 큰 영향을 줬으며 2003년 1월 23일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제3회 세계사회포럼 World Social Forum에서 반전평화-반미 전선을 형성하지는 결의로 이어졌다. 세계사회포럼의 주제는 이라크전쟁 반대와 세계화 반대였다.

2) 전 세계 시민들의 단결

세계사회포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진 전 세계의 NGO들은 자기 조직 주변의 시민들을 향해 '이라크전쟁을 반대하자'고 설득·선전하며 거리

시위를 조직했다. 9·11 사태 이후 야수로 돌변한 부시 정권의 전쟁 책동을 꾸짖어온 시민들은 NGO의 제후를 반감케 여기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각국의 시민들은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적 전쟁 구도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는 뜻을 함께 하면서 '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단결'을 이뤄냈다.

2. 반전평화운동을 폭발시킨 에너지는 어디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전 세계의 시민들이 이라크전쟁 반대의 열기를 지니고 있더라도 이 열기를 한 군데 모으는 '운동꾼(운동 조직)'이 없으면 허사이다. 그런데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한 반전평화운동의 폭풍이 일어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오래 전부터 반전평화운동의 발을 갈아온 '꾼'들이 있었다. 이 '꾼'들의 질량에 따라 반전평화운동의 질량이 결정됐다. 질 높은 '꾼'들이 많이 포진된 유럽이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을 이끌어간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에 질세라 분발해온 미국의 '꾼'들 역시 9·11 사태 이후 비상한 각오 아래 시민사회에 반전평화의 깃발을 튼튼하게 꽂았다. 이에 비해 질 높은 '꾼', 즉 일당백의 '평화 일꾼'들이 태부족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미지근했던 반전운동이 '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달구어졌으나, 이라크전쟁이 끝나자마자 가장 빠르게 냉각되어 버렸다.

여기에서 준비된 운동과 준비되지 않은 운동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풀뿌리 평화운동 조직의 일상 활동을 통해 반전운동의 용암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평화운동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은 평화운동의 다층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평화운동단체를 교회가 에워싸며 도와주고 정당(독일의 녹색당, 스칸디나비아의 사회주의 정당 등)이 엄호하거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다층 구조를 다지면서 반전운동의 용암을 터뜨렸다. 프랑스·독일 정부가 미국의 전쟁 정책에 반기를 들고 영국의 시민들이 블레어 내각을 괴롭힌 저력은 설 틈 없이 평화운동을 조직해온 양질의

‘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유럽 못지 않은 평화운동의 저력을 축적해왔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고어 후보에 표를 던진 대다수의 시민들은 반전평화운동에 심정적인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특히 고어를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녹색당 후보 램프 네이더를 지지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운동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결국 시민사회의 물밑에서 평화운동의 잠재력을 키워온 유럽과 미국의 반전평화운동 진영은, 이라크전쟁 국면이라는 운동의 호기를 살려 평화의 힘 Peace Power을 분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비해 준비가 덜 된 아시아의 반전평화운동 세력은 유럽·미국의 운동권을 뒤따라가는데 급급했다. 결국 준비된 평화운동을 전개한 유럽·미국 쪽이 반전운동의 폭죽을 터뜨리는데 앞장서게 됐다.

3. 저항의 지향점

수천만 명의 세계 시민들이 미국의 명분 없는 이라크 침공에 저항했지만 저항의 이유는 일률적이지 않다. 시민들의 세계관이나 자신의 입지에 따라 저항의 강조점이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저항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를 침공한 다음 북한이나 이란을 공략하려는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을 방지하면 안 된다는 세계 시민의 자각이 운동의 자양분이 됐다.

2) 기만적인 전쟁 정책

아프간 전쟁의 재판인 이라크전쟁의 속임수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아프간에 진주한 소련군을 내쫓기 위해 빈 라덴과 제휴했던 미국, 이란의 이슬람 혁명 기운을 꺾기 위해 후세인과 제휴했던 미국. 미국의 정보기관은 빈 라덴을 앞장세워 소련군에 대항하게 했고, 이란-이라크 8년 전쟁 때는 후세인을 앞장 세웠다. 그런 미국이 이제 불필요해진 옛 동지(빈 라덴, 후세인)를 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기만극을 용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옛 동지를 토사구팽하는 잔인함에서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은 닮은 꼴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비정한 전쟁의 속임수에 대한 규탄이 반전운동의 도덕력을 제공했다.

3) 세계 질서 파괴범 미국

유엔의 권능을 무시한 미국이 바로 강패 국가(불량 국가)임을 확인한 양심 세력들이 세계 질서의 파괴범인 미국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4) '제국' 미국의 횡포와 오만

수천만 명이 모인 반전 집회의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부시 전쟁 집단의 오만함에 분통을 터뜨린 세계 시민들은 '제국' 미국의 쿫대를 꺾어야 평화가 도래한다고 주창했다. 미국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반전 집회장에서 이뤄졌다.

5) 미국의 호전적인 지배계급

이라크전쟁의 원흉인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 Neo Con: Neo Conservative 과 이들을 원격조정하는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 유대인 세력 ·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의 실체를 파헤쳐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적인 지식인 사회에서 많이 나왔다.

6) 무력에 의한 후세인 정권 붕괴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는 비이성적인 전쟁 행위를 중단하라는 구호가 시위장에서 터져나왔다. 이라크에 진격한 미군이 전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를 혈안이 되어 찾았으나 실패했다.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한 후세인 정권이 인류 평화의 적이므로 전쟁을 통해서라도 타도해야한다'는 미국의 전쟁 명분이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 이런 명분 없는 전쟁극을 비난하는 목청이 높았다.

7) 자원 약탈형 침략 전쟁

미국 자본주의의 승승장구를 위한 원유 확보의 수단으로 이라크전쟁을 개시했다는 평론이 설득력을 갖추면서 '자원 약탈 전쟁'이 성토의 대상이 됐다.

8) 제국의 살육, 이라크 민중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이미 걸프전 이후의 경제 제재로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을 죽이고 모성을 파괴한 '학살의 주범' 미국은 징벌의 대상이었다. 이윽고 전쟁에 돌입한 미국은 이라크 민중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통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이런 '제국의 살육 전쟁'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했다.

9) 중동 재식민지 정책

19세기 말~20세기 중반의 서구 제국주의가 중동을 식민지로 삼아 착취한 방식을 답습한 미국의 중동 재식민지 정책이 이라크전쟁을 통해 입증됐다. 지난번 아프간전쟁은 중동 재식민지 정책의 서막이었고 이라크전쟁은 본론에 해당된다. 중동의 무슬림 정권을 차례차례 무너뜨려 서구식 자본주의 정권을 세워 미국·이스라엘의 판도로 만들겠다는 재식민지 정책, 이 정책의 시범 케이스로 선발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야만'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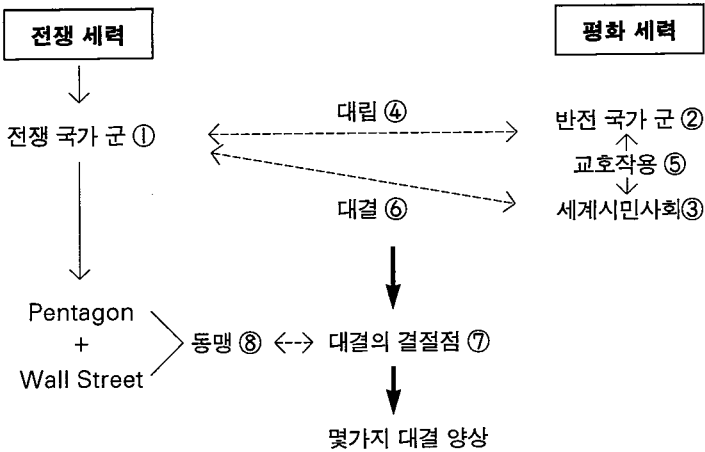
위의 다양한 지향점의 바탕 위에서 ‘유병무죄有兵無罪’의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세계 시민의 ‘평화를 향한 변혁의 욕구’가 반전 시위의 형식으로 분출됐다. 미국 같이 ‘병兵’ 즉 무력을 많이 가질수록 전쟁 범죄의 면죄부를 받을 뿐 아니라有兵無罪,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모순 투성이의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세계 시민의 이성이 폭발한 것이다.

반전평화운동의 구도

이라크전쟁을 앞뒤로 전 세계 차원에서 전쟁 세력(전쟁 추진 세력)과 평화 세력(전쟁 반대 세력)이 명확하게 갈라졌다. <표>에서 보다시피 전쟁 세력은 미국·영국 및 그 이류 국가들(일본, 스페인, 쿠웨이트, 한국 등)로 이뤄진 전쟁국가군(①)이고, 평화 세력은 반전국가군(프랑스·독일·벨기에·러시아 등)(②)과 ‘반전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시민사회(전 세계의 반전평화 운동권)(③)으로 이뤄졌다. 전쟁국가군(①)과 반전국가군(②)이 대립(④)하는 가운데, 반전국가군(②)과 평화지향적인 세계시민사회(③)는 교호작용(⑤)을, 전쟁국가군(①)과 평화지향적인 세계시민사회는 대결(⑥)하는 구도를 보였다.

전쟁과 평화를 에워싸고 새롭게 형성된 이라크전쟁 구도는 맑스주의의 국제정치론, 네그리의 제국론,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중속론), 사이드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Post-Colonialism, 아나키즘, 세계화론, 러시트의 민주평화론,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포스트모더니즘의 국제관계론에 의해서는 풀이되기 어렵다. 이들 기존의 이론 틀로는 프랑스 등 제국의 아류들이 제국의 원조인 미국에 대항하고, 전쟁의 원흉으로 낙인 찍힌 국가권력이 반전을 주창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진보적인 NGO와 뜻을 같이 하고, 세계 체제가 단순하게 중심부 대 주변부로 나뉘어져 있지 않으며, 19세기말에 흥행했던 제국주의적 약탈 전쟁을 통해 이라크를 재식민 re-colonialization하려 하고,

(표) 반전평화운동의 구도



분류	전쟁 세력	평화 세력
주체 ⑨	WASP, 유대인 세력, 軍·産복합체 ⑨-1	World Governance? Multitude? People? ⑨-2
주체의 대항자 ⑩	Neo Con, CNN 등 ⑩-1	ANSWER, Stop the War Coalition 등 ⑩-2
노선, 슬로건 ⑪	Bush Doctrine ⑪-1	No War ⑪-2
위의 노선의 수행자 ⑫	일본, 한국 등 이라크전쟁의 간접적인 공범자 ⑫-1	전쟁 공범자 규탄 운동 그룹(유사입법 반대, 파병 반대) ⑫-2
수행 방식 ⑬	다보스 회의,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영국의 외교 공세, 전쟁 세력의 총공세 ⑬-1	세계사회포럼, 유엔 안보리에서 프랑스·러시아·중국의 반발, '가두시위 + On line 운동의 합성' ⑬-2

신자유주의에 영합하던 프랑스가 '신자유주의형 이라크전쟁'에 반기를 들고, 민주평화론을 왜곡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문명충돌론에 입각해 전쟁을 일으키는 등 이라크전쟁 전반을 설명할 수 없다.

기존의 이론들 중 일부, 예컨대 네그리의 제국론이나 세계 거버넌스 World Governance론을 원용해 이라크전쟁을 국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총체적

인 접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구도에 걸맞는 이론이 요청된다.

새로운 이론은 우선 전쟁국가군의 전쟁의 힘 war power(전쟁이란 폭력)과 평화의 힘 peace power 사이의 '대결의 결절점 node' (⑦)을 정확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전쟁의 힘을 드러낸 펜타곤 + 월스트리트 동맹(⑧)과 평화의 힘을 보여준 '평화지향적인 세계시민사회'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수행방식을 선택했는지, 두 진영의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 대결의 결절점에서 드러난 몇 가지 양상을 기술한다.

첫째, 주체(⑨)의 문제이다. 이라크전쟁의 주범인 부시 정권을 원격조정 한 펜타곤 + 월스트리트 동맹은 전쟁의 공범으로서 WASP, 유대인 세력, 군·산 복합체를 합성한 미국의 지배계급(⑨-1)이다. 호전적인 '제국' 미국의 지배계급이 이라크전쟁의 주체이다. 그러면 이에 맞선 평화지향적인 세계시민사회의 주체(⑨-2)는 누구인가? 프랑스 등 국가권력이 반전평화운동 진영과 이심전심으로 통했으니 세계 거버넌스 World Governance가 핵심 세력인가(이런 핵심 세력이 실존할까?), 거리시위의 현장을 메운 불특정 다수로서의 다중 Multitude인가? '제국' 미국에 저항하며 미국 주도의 전쟁 지향적인 세계 체제를 변혁하려고 작심한 'People(민중, 인민)'인가? 전쟁 세력의 주체는 윤곽이 뚜렷한데 평화 세력의 주체(주체의 범주)가 불분명하다. 평화 세력의 주체가 명확히 범주화되어야 앞으로 반전평화운동의 전략도 명확해질 것이다. 어쨌든 ⑨-1과 ⑨-2의 두 주체 간의 대결 구도를 밝히는 가운데 새로운 이론의 틀이 잡힐 것이다.

둘째, 이 주체의 대항자(⑩)는 누구인가? 전쟁 세력의 경우 신보수주의 세력(Neo Con이라 약칭)과 CNN 등 이데올로기 기구이며(⑩-1), 평화 세력의 경우 미국의 'ANSWER 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 와 영국의 'Stop the War Coalition' 등의 반전평화운동 연합체 및 이들 단체에 호응한 전 세계의 반전평화운동 단체이다(⑩-2). 그러므로 미국에서 Neo Con

과 미국의 평화운동 진영(ANSWER 등)이 어떻게 맞섰으며 유럽에서 블레어 정권과 유럽의 평화운동 진영(Stop the War Coalition 등)이 어떤 대결의 결절점을 이루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이 대항자들의 노선과 슬로건(⑪)은 무엇인가? 전쟁 세력의 노선은 '부시 독트린 Bush Doctrine' (⑪-1)에 담겨 있으며, 이 노선에 따른 반테러 전쟁 구도에 발맞춰 '깡패 국가(이라크, 북한, 이란 등의 악의 축 국가) 타도'를 내걸었다. 이에 평화 세력 쪽은 신자유주의 반대와 짝짓기한 변혁·반미·반제국 지향적인 반전평화운동 노선을, 평화 세력 일반은 세계 시민론과 연계된 평화운동 노선을 지향했다. 평화 세력 안에서 노선의 편차는 있으나 이 편차를 뛰어 넘은 슬로건 'No War' (⑪-2)를 내세움으로써 대동단결을 이룩했다. 변혁 지향적인 평화운동 그룹은 No War를 '非戰(어떠한 전쟁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평화주의 Pacifism의 의지)'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 평화 세력 일반은 No War를 '反戰(그냥 현상으로서의 전쟁에 반대)'으로 해석하려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느슨한 견해 차이를 뛰어넘은 평화 세력과 전쟁 세력 사이의 치열한 노선 싸움이 이라크전쟁의 뒷전에서 벌어졌다.

넷째, 위의 노선을 뒷바라지한 국가·집단·개인(⑫)의 문제이다. 전쟁 세력 노선의 압권인 부시 독트린에 힘을 실어준 스페인·이탈리아·동유럽 국가·쿠웨이트·바레인·일본(자위대 합정 파견)·한국(한국군 파병)의 국가 권력(정부)은, 이라크전쟁의 간접적인 공범자들이다(⑫-1). 이들 공범자들을 규탄하는 운동이 각국에서 전개됐는데 일본에서는 '이라크전쟁 반대 + 유사 입법 반대'의 형태로 한국에서는 '이라크전쟁 반대 + 파병 반대'의 형태로 이뤄졌다(⑫-2). 이 지점에서 각국의 반전평화운동 세력과 국가 권력(정부)이 직접 대립하게 됐다.

다섯째, 수행의 방식이다. 전쟁 세력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방식(⑬-1)과 평화 세력이 수행한 방식(⑬-2)의 대립이다. 첫 번째 대결은 올

해 초 거의 같은 시기에 열린 전쟁 세력의 다보스 회의 대 평화 세력의 세계 사회포럼이다. 둘째, 유엔 안보리에서의 이라크전쟁 결의를 에워싼 전쟁국가군 대 반전국가군의 로비 전쟁이다. 세 번째, 전쟁국가군의 이라크전쟁을 위한 총공세에 대항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심에서 이뤄진 가두시위이다. 평화 세력은 온라인을 통한 게릴라 수법으로 전쟁국가군의 총공세를 맞받아쳤다.

온라인 평화 세력의 힘이 오프라인의 거리시위로 다시 연결되는 ‘오프라인 + 온라인 운동의 합성력’이 전 세계에서 반전평화운동의 폭죽을 터뜨렸다. (전쟁 세력의 자본가들이 정보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위해 깔아놓은) 온라인망을 최대한 활용한 ‘게릴라 반전평화꾼’들이 반전평화운동의 세계화에 앞장선 ‘뒤집기(전복)의 쾌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과 평화를 수행(이룩)하는 방식의 공방이 벌어졌다.

반전운동의 평가와 과제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전쟁과 평화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과 더불어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가 이라크전쟁 종식 직후 식어버린 ‘냄비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이런 진단을 위한 예비적인 판단 자료로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다.

1. 반전평화운동론의 편차와 유형

이라크전쟁 반대운동은 두 가지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에서 전쟁 반대 운동이 일어난 신기록과 전쟁이 일단락되자마자 운동의 열기가 가장 급속하게 냉각된 신기록이다. 베트남전쟁 때는 전쟁 발발 이후 약 10년 뒤에 반전운동의 최고봉을 이루었고, 1968년 유럽의 ‘68 혁명’은 베트남 반전운동 등에 영향을 주면서 ‘68 혁명’의 발단이

된 상황의 종료와 무관하게 서구 사회의 가치관의 대전환을 이뤄냈다.

너무 빨리 달아올랐다가 너무 빨리 냉각된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냄비 현상'의 수수께끼가 풀려야 운동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 같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운동의 사상적·조직적인 지도부의 부재를 거론할 수 있으나 무주공산인 온라인에서 맹활약한 온라인 평화운동의 공헌도를 생각할 때 지도부 부재론은 오프라인의 발상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심력 없이 산만하게 반전평화운동의 불꽃을 일으켰다가 금방 사그라든 이유를 알아야 한다.

반전평화운동의 보배 같은 결절점을 지구촌 곳곳에 만들어 놓고도 그런 보배를 하나의 نیرو 꺾지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운동의 사상이 결여된 채 감각적인 반전운동에 심취된 탓이 아닌지, 전쟁세력의 본거지인 '펜타곤 + 월스트리트'의 주변에서 변죽만 울린 것은 아닌지, 이라크전쟁의 본질인 '군국주의적인 미국 자본주의'와의 육박전을 왜 벌이지 못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본격적인 운동론을 다루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청되므로 몇 가지 문제 제기로 가름한다.

전 세계 평화 세력은 통합된 사상적 지침이 없이 반전운동을 벌인 결과 운동의 냄비 현상을 초래했다. 즉 사상의 나침반이 없는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나침반이 없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운동론을 펼치는 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경향이란 측면에서 세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변혁 지향적인 반전평화 운동론이고, 두 번째 유형은 전쟁 지향적으로 나아갈지 모를 세계시민사회를 개량reform하려는 운동론이며, 세 번째 유형은 생명운동, 환경운동, 페미니즘, 인권 운동 등을 아우르는 '제3의 섹터sector'이다.

첫 번째 유형의 운동론은 '펜타곤 + 월스트리트'의 아성에 도전하는 의

지를 내보이며 전쟁 지향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했다. 세계사회포럼,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세력, 노동운동 세력, 촛스키 등이 대표 주자이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통일연대, 민중연대, 자통협(민족화해지구 통일협의회)·한총련 등이 이런 경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제국 미국 반대·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의 결합 또는 '자주와 평화의 결합(지구평화 노선)'에 관심이 있다. 평소에 계급적·민중적·민족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반전평화운동과 반미·반제운동 사이의 문지방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편 세계 시민의 양식·양심에 호소하는 두 번째 유형의 '개량주의 운동론'에 개혁의 요소가 깃들여 있다 해도 그것은 혁명(revolution)이 아닌 전환(transformation)이다. 이들이 단순하게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조나 세계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전쟁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 대신 시민사회의 안보에 주력하는 인상을 준다. 이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이성적 시민의 입장에서 반전운동에 임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안보의 대안으로서 시민사회 안보를 내세우지만 미국형 국가안보 체제의 핵심인 제국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반전평화에 주력할 뿐 반전평화가 반미·반제로 이어지거나 승화되는 데에는 거의 무관심하다. 이들 중 일부는 반미주의에 대한 혐오증을 드러내며 '반전 평화'만을 주장한다.

세 번째 유형인 '제3의 섹터'는 두 번째의 시민사회 지향적인 반전평화운동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자신들이 고수하려는 운동의 가치(환경운동, 페미니즘, 생명운동, 종교운동, 인권운동 등)에 입각해 반전평화운동을 바라본다. 이들에게 반전평화운동이 반미나 아니냐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이런 운동 경향의 편차는 세계적인 차원의 반전평화운동이란 대의명분 앞에서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도 촛불시위의 반전평화운동으로

의 이행 과정, 파병 반대 운동 속에서 작은 차이 때문에 대세에 지장을 가져온 적은 없다. 그럼에도 이런 작은 차이가 불씨가 되어 전국적인 차원의 반전평화운동 조직을 내오는 데 장애물이 될 소지는 있다.

2. 동아시아 반전평화운동 지체의 원인과 과제

평화운동의 역사가 깊은 일본 쪽이 분발했으나 전쟁 세력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점, '운동의 강성대국(?)' 으로 알려진 한국 쪽이 가장 적은 대중 동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찾기 어려우나 몇 가지 운동의 맹점을 어렵잡아 거론하고자 한다.

1) 일본쪽 운동의 맹점

일본의 운동은 싱겁다. 매서운 맛이 없어서 정부나 지배 세력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배 세력이 두려워하거나 경계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의 일반 시민들은 평화운동 진영이 무엇을 하는지 알 리 없다. 따라서 대중성이 떨어져 소수 열혈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전락한다.

2) 한국쪽 운동의 맹점

그럼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어떠했나? 걸음마 단계의 한국 평화운동이 이 정도면 잘했다고 자위할 요소가 있으나 몇 가지 구조적인 맹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전략적인 지도부의 부재이다. 현재 시민사회 운동단체를 이끌어가는 상층 인사들의 경우 태반이 '평화'의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교양이 부족하다. 이런 두 가지 현상은 전국 단위의 반전평화운동 조직을 꾸리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반공 의식에 의해 심리적으로 억압받고 있던 시민들의 전쟁 불감증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점이다. 최근 냉전수구 세력에 의한 '반전·반핵(북한 핵 반대, 전 세계 평화애호 세력의 반핵과 다른 노선)·반김(김정일 반대)'의 준동을 빼기 박지 못하는 저변에, 시민들의 전쟁 불감증을 방치한 '원죄(?)'가 있다.

셋째, 한국인의 '냄비 기질'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라크전쟁이 종식되자마자 전쟁 반대의 구호가 낮설게 됐다. 물론 지금도 광화문에서 소수의 시민들이 매일같이 촛불시위를 하면서 '우리는 냄비가 되지 말고 뚜껑배기가 되자'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들의 메아리가 시민사회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지 못하다.

넷째, 시민운동 진영과 민주운동 진영의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감각 차이와 각 진영 내의 이견으로 촛불시위를 전국적인 전쟁 반대 물결로 승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운동권의 국제적인 감각(국제주의) 부족이다. 전 세계의 정치 판도가 농축된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데 국제적인 감각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스스로 감각을 터득하는데 철저하지 못했다. 특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쪽(이른바 NL 진영)이 '민족'에 습관적으로 매몰된 결과 이라크전쟁의 다층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데 소홀했다.

여섯 번째, 파병 반대를 통해 반전평화운동의 동력을 배가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파병 반대에만 집착한 결과 파병안 통과 이후 운동의 과녁을 상실했으며, 이라크전쟁이 예상 밖으로 빨리 종결되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반전운동의 거품이 빠져 버렸다.

일곱 번째, 반전평화운동의 주력 부대인 학생운동의 약화이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집중적인 탄압을 받은 학생운동의 무기력이 반전평화운동에 직접 반영됐다. 반전 동맹파업도 겨우 서울대만 성사시켰다.

이런 몇 가지 맹점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2월 15일과 3월 15일 집회

의 역부족이다. 물론 이 집회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한국의 운동지도부·활동가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시위방식으로 대중을 동원하려한 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이 밖에도 조직의 문제, 시민사회에 파고들지 못하는 운동 양태, 통 크게 단결할 줄 모르는 단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런 맹점을 극복하는 가운데 (반전평화운동 대열에 함께 했던 시민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운동의 썰물 현상을 막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민들을 엮어내는 '사람 사업' 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며 이런 측면에서 반전평화운동의 기동전 못지 않게 진지전이 중요하다.

맺는 말

지구촌의 정치를 움직였던 반전운동의 물결이 퇴조하는 가운데 운동의 썰물 현상을 막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활동가들이 애쓰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빛나는 운동의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 시민과 함께 한 반전평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① 미국의 위신 저하. 미국의 세계 지배 정당성 약화. 미국이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정당성 확보 전쟁에서는 패배, ② 시민사회의 정치력 강화. 세계시민사회의 세계 정세에 대한 개입력 강화, ③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의 도덕적 승리, ④ 국제 진보운동의 결속에 따른 운동력 확장. 이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운동 틀을 내올 가능성.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군사력을 남용하며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을 견제할 '평화의 힘' 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쟁 지향적인 세계화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광 부시 정권의 막가파식 전쟁을 저지할 '평화의 힘' 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전국가군과 평화 지향적인 세계 시민사회의 강고한 연대가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끼리 국경·민

족·종교의 차이를 뛰어넘는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전쟁 세력의 맹주인 미국이 아직도 북한에 대한 공격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서의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세계 시민들 사이의 연대'를 위해 맹진할 필요가 있다. ■

김승국 seung815@kornet.net | 평화활동가, 통일연대 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의장, 평화 만들기 발행인으로 활동 중. 한겨레신문 기자, 월간 『말』 편집국장 역임.